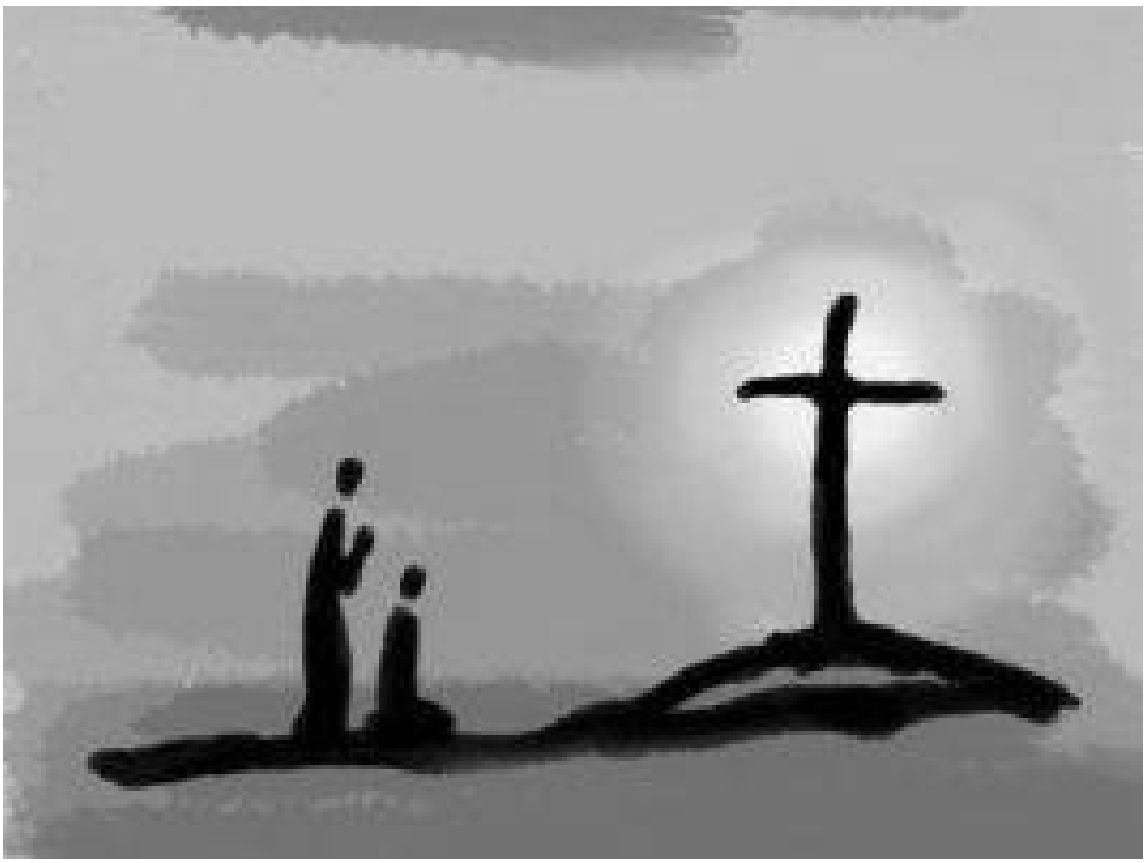
만남

2017 3월
통권 146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신부님 칼럼	+ 나의 사순시기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허무한 부귀영화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64~166	8
기도 소개	오늘은 정말 당신 앞에	11
나 눔		12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선교 : 박해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으로 힘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사순 시기

가끔씩 나의 사순 시기는 어떠했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순시기가 되면 술과 담배를 절제하겠다는 결심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희생하고 극기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과 약속이란 것이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순 시기만큼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만큼 나의 사순 시기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순 시기라고 해서 특별한 결심이나 약속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반드시 완수하지 못할 일이라면 그런 결심이나 약속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깊게 뇌리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결심이라든가 약속에 대해서 꺼리게 되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결심을 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옳고, 어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결심했던 일도 어떤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면 수정해야만 하고, 약속했던 일도 그것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수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으며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난과 고통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순 시기는 해마다 우리가 지내야 하는 그저 그런 절기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 됩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만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사순 시기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닐는지요.
십자가의 가장 중앙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모든 것을 이어주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끊어놓았던 모든 것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순 시기는 결심보다 약속보다 훨씬 더 내밀한 관계로 자리 잡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결심하지도 약속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좀 더 오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 허무한 부귀영화(시편 49,2-11)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7번 '이 세상 덧없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49편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49, 2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귀여겨들어라.
3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함께 들어라.
4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롭다.
5 나는 잠언에 귀 기울이고
비파 타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6 나를 뒤쫓는 자들의 악행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랴?

7 자기 재산을 믿으며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8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9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라다,
10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아니 보기에는.
11 정녕 그는 본다, 지혜로운 이들의 죽음을,
어리석은 자도 미욱한 자도 함께 사라짐을,
그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 둔 채로!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한단지몽(邯鄲之夢)이란 말은 인생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이 허무(虛無)함을 이르는 고사성어입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사 여옹이 한단(邯鄲:河北省 所在)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젊은이가 옆에 와 앉더니 산동(山東)에 사는 노생(盧生)이라며 신세 한탄을 하고 나서는 깜박깜박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사 여옹이 보따리 속에서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 베개를 꺼내 주자 노생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생이 꿈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 베개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노생은 최 씨(崔氏)로서 명문인 그 집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아가 순조롭게 승진했습니다.

10년간 노생은 황제를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 명재상으로 이름을 높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변방의 장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노생과 함께 잡힌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으나 그는 환관(宦官)이 힘써 준 덕분에 사형을 면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년 후 죄를 뒤집어쓴 것임이 밝혀지자 황제는 노생에게 직접 벼슬을 내리고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 노생은 권문세가(權門勢家)와 혼인하고 고관이 된 다섯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다가 황제의 어의(御醫)가 지켜보는 가운데 80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노생이 깨어보니 허무한 꿈이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여옹이 앉아 있었고 주막집 주인이 짓고 있던 밥도 아직 다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생을 바라보고 있던 도사 여옹은 웃으며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네.” 라고 말하자 노생은 여옹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한단을 떠났습니다.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땅에서 여옹(呂翁)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자며 80년간의 영화로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보니 밥을 짓는 사이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 한단지몽(邯鄲之夢)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준주성범 제 3 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교리164

제10장 세속을 떠나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

1 **제자의 말** 주님, 이제 제가 다시 침묵을 깨뜨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임금이신 주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한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시편 31,20)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이, 당신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이에게는 또 얼마나 선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려 주시는 거룩한 관상의 기쁨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사랑의 징표를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은 저를 무無에서 창조하여 있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멀리 잘못 들었을 때 저를 다시 이끄시어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항상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 오! 끝없는 사랑의 근원이시여, 당신을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쇠진하여 넘어졌을 때도 저를 생각해 주신 당신을 어찌 잊겠습니까?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당신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당신 종에게 은총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총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 수도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섬길 의무가 있는데,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을 섬기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고 부당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니,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제가 찬미해야 하는 것이요, 위대한 일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165

3 제게 있는 모든 것이나 또 당신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서,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보다 당신이 저를 더 섬기십니다. 사람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만드는 하늘과 땅은 당신 면전에서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매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은 천사들에게까지 명령하시어 사람을 시중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은 당신께서 사람을 섬기시고, 당신 자신이 사람에게 주실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4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일생에 걸쳐 매일같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온전하게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당신을 섬겨야 옳고, 당신을 찬미해야 옳으며, 당신을 영원히 공경해야 옳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저의 주님이시오, 저는 당신의 불쌍한 종이오니, 저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섬겨야 하고, 당신을 찬미하는 일에 단 한번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께서 채워 주소서.

5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요, 큰 명예입니다.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이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굽히는 사람은 무한한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진하여 험한 길을 걷고 세상의 모든 걱정에 개의치 않는 사람은 마음의 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6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오! 오로지 당신을 섬기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는 거룩한 수도 생활이여, 사람을 천사와 같이 만들고, 하느님께 결합시켜 주고, 마귀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모든 교우들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룩한 생활이여! 오! 항상 마음에 두고 바라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여! 그것으로써 가장 고귀한 선을 얻게 되고,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얻게 되나이다.

교리166

제11장 마음의 원의를 조절함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 더 배워야 한다.

2 **제자의 말**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3 **주님의 말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직 나의 원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원의를 채우는 데 힘써라. 네게 있는 어떤 바람이 너를 강력하게 이끌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에는 그 바람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난 것인지, 혹 너의 편의를 위하여 일어난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원의가 나에 관한 것이면 내가 어떻게 섭리하든지 네가 만족할 것이며, 만일 네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방해와 괴로움이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네가 무슨 원의를 품었더라도, 내게 먼저 묻기 전에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처음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좋아하다가 후에 그것이 네 뜻에 맞지 않아 후회하게 될까 봐 두렵다. 어떤 것이 네 뜻에 맞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바로 피할 것도 아니다. 좋은 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나, 좋은 원의에 있어서나, 적절한 때 적절하게 제재하는 것이 좋다. 혹시 정신이 나태하여 분심이 생길까, 분수를 모르고 하다가 남에게 악한 표양이 될까, 다른 사람이 반대하여 네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넘어질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5 때로는 육정을 누르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강제로라도 육정이 이성理性에 굴복할 때까지, 사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순박한 것을 즐겨라.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원망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고 종과 같이 다스려야 한다.

미카엘 신부

오늘은 정말 당신 앞에

주님! 오늘은 정말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는 친구들을 위해 단 한 톨의 시간도 나누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달란트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전 분노와 짜증만 냈습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기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몸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입으로 사랑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몸으로 사랑하기란 너무나도 힘들기에
죄인인 이 몸은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당신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친구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오늘도 함께 하소서.

십자가의 길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성난 군중들은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 광기 어린 군중들의 고함 속에서 묵묵히 고개 숙이고 계신 당신을 바라보며, 저 또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섞여, 진실을 외면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워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가 얹힙니다. 그 거대한 나무토막은 저희 모든 인간의 영혼의 무게처럼 당신을 짓누르며 당신의 어깨를 파고듭니다. 당신께서 짊어지신 그 나무의 무게는, 어쩌면 저희를 향한 당신 사랑의 무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의 어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작은 나무 조각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저의 빈손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안간힘을 쓰며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다. 이 길의 끝에 죽음밖에 없음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왜 그토록 죽음의 길을 끝내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주님, 제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군중들의 아우성도, 병사들의 고함도 사라져 버린 지금, 어머님과 당신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흐를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 어머님과 당신이시기에, 어떤 하소연도 위로도 없이 그저 성스러운 침묵만이 남겨집니다.

주님, 제가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키레네 사람 시몬이 당신을 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지금, 참하느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인간을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당신을 돕기 위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당신의 십자가가 너무도 무거워서인지, 저에게 돌아올 군중의 시선이 두려워서인지,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도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베로니카의 수건이 당신께서 흘리신 피와 땀으로 젖어듭니다. 베로니카의 눈에는 군중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괴로워하는 당신만이 보이는 듯합니다. 베로니카의 수건이 당신의 얼굴을 닦아내듯이, 저희 또한 타인의 눈길을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아픈 마음을 닦아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으로 당신의 피 흘리는 성심을 닦아드리며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바로 저희의 죄악이 당신의 등에 올라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모두 받으시면서 또 다시 일어나 죽음의 길을 걸으시려는 당신. 당신께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당신의 온 몸을 바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설령 또 다시 넘어진다 해도 결연히 일어나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당신을 바라보며 여인들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주님, 저희 또한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당신께서는 또 다시 넘어지십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당신께서 다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끌어안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당신 삶의 모든 이유인 것처럼, 당신께서는 그렇게 고통의 길을 향해 다시 일어나십니다. 언제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어 당신 사랑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나약한 저희가 수없이 넘어져도 끝없이 일어나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당신의 옷을 벗기고 있고, 저는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감추신 몸을 강제로 벗기려는 배은망덕한 피조물, 그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알몸이 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알몸으로 차디찬 바람을 맞고 있는 예수님, 그런 당신을 덮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 밖에 없나이다.

주님, 제가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오직 당신의 길만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지금 이곳엔 맨살을 할퀴는 날카로운 바람과 메마른 망치질 소리만 가득합니다. 당신의 손에 망치질을 하는 저 군인은, 모든 인간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망치를 내리칩니다. 날카로운 못이 당신의 손과 발을 꿰뚫고 지나가는 지금, 저희의 손발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저희의 죄가 못이 되어 당신의 손을 뚫었으니, 이제는 저희 또한 사랑으로 기꺼이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들어 높여지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당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모든 인간을 내려다보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저 자신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던 제자일 뿐 아니라 성난 군중이었으며, 난폭한 병사였고, 못질을 하던 군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저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주님, 나약한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황급히 몸을 돌려 해골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신 곁에 머무르던 성모님과 제자들은 당신의 죽음 곁에서도 머무릅니다.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 이제 구세주의 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인간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제가 성모님의 품에 안겨 죽기까지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어 무덤 속까지 내려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 죽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당신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 저희 또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무덤까지 내려가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 안 나	김 주 영	15일	루도비카 드 마리약	황 태 엽
3일	가 밀 라 (St. Camilla)	허(이)명자			
9일	카타리나	오 경 은	19일	요 셉 (St. Joseph)	이 현 묵 한 규 호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St. Catharina)	박미량(H)	19일	요 셉 (St. Joseph)	문지서(H) 이재홍(O)
12일	세라피나	김보경(H)			
13일	살 롬	현우(H)			

❖ 3월 성가번호

3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115	226	153	121
5일	116	216	163	280
12일	72 - 3	217	160	117
19일	118	340	170	119

❖ 3월 미사 전례 봉사자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정명옥(살로메) 김애란(체칠리아)	김부남(베드로) 박우현(루치아)	최장용(레오) 이현목(요셉)	1구역
12일	이수응(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치수(도밍고)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19일	김매자(베로니카) 최성자(벨라뎃다)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그네스)	주일학교 복사단	3구역
26일				4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29일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계(€)	276.10	219.47	178.10	188.93	

❖ 자진헌납금 ❖

2017년 1월 23일 ㅡ 2017년 2월 25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최장용, 박귀동, 강신행, 강순행, 이기열, 이경규, 김용일, 현영애, 김순임, 한선지,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김건, 김경미, 이현묵, 이중지, 이공종, 김형웅, 최승진, 이석우, 배성우, 이정수, 문경희, 신옥희, 김기연

❖ 공 동 체 소 식 ❖

구좌입금 : 허두욱, 서유미, 이명원, 김치수, 이상봉, 김수혜, 남궁 춘배, 곽케빈, 허길조, 홍경영, 영희 Eggerstedt, 김대현, 최현봉, 이성원, 김진호, 오옥수, 권지연, 최화영, 박준병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전례에 자주 참여하여 함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가정은 만남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시고 원하시는 날짜에 기입해 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각 가정에서는 따로 뭔가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3. 3월 19일은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이시며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 성인의 대축일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에는 주일이 대축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다음 날인 월요일로 옮겨서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지만 특별히 저녁에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미사와 더불어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특별히 사순 시기 금요일에는 마땅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쳐야 한다고 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에 따라 소공동체 모임이 없는 셋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19시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성체성사가 교회의 핵심이긴 하지만 성체성사 없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다양한 전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 예비자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먼저 등록을 하시면 차후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사목협의회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3월 25일(토) 오전에는 함부르크 교구 보좌주교님 서품식이 있고, 오후에는 아치에스가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비자교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묵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3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일	요일	전 례 일	단체 행사	비 고
1	수	재의 수요일 (삼일절)	19:00 미사	
2	목		꾸리아	
3	금			
4	토			브레멘 공동체
5	일	사순 제1주일 (경칩)	사목협의회	
6	월			
7	화			
8	수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9	목			
10	금		2구역 소공동체	
11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2	일	사순 제2주일	청년 소공동체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십자가의 길 1	
18	토			하노버 공동체
19	일	사순 제3주일		
20	월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춘분)	대축일 미사와 더불어 사순 특강	
21	화			
22	수			
23	목			
24	금		십자가의 길 2	
25	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아치에스	보좌주교님 서품식
26	일	사순 제4주일	가족미사	
27	월			
28	화			
29	수			
30	목		연령회	
31	금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일(1866년)	교환사목 – 베를린, 최태준 필립보 신부님	주임 신부님 – 뮌헨 본당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본당 신부님 — gruess8823@gmail.com, H.P : 0176 4321 9708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르톨로메오 —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